

지금 이시각

2024. 4
스물두번째

TIME NOW



오종원

자전거를 타자(2)

김희진

점선에 갇힌 (2)

이채연

4.16 참사 추모

줄리

‘계란에 진심이다.’

박준식

2024 금의 성물 시리즈

제이드

리얼 노마디스트

Pighead Lab



표지이미지 :

'요즘 핫하다'는 느낌보다는 적당히 오래된 식당 느낌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다들 입 모아서 "여기는 가봐야 해"하는 곳이라면 호기심이 생긴다. 제주의 이 고깃집은, 많이들 추천하길래 방문은 했지만 그럼에도 큰 기대는 없었다. 과거 제주 흑돼지라고 해서 먹어도 별 감흥을 못 느꼈기 때문이다.

숙성 돼지고기로 유명한 식당. 과연 시중에서 먹는 생삼겹과 얼마나 다를까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정말 맛있었다. 주력 메뉴 중 하나가 앞다리 살이었는데, 족발 정도의 고기 질감을 생각했다가 너무 부드럽고 감칠맛이 나서 깜짝 놀랐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다. 같이 방문한 일행이 돼지고기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 편임에도 더 시켜먹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극찬할 수밖에 없는 고깃집. 고기 뿐만 아니라 같이 먹을 수 있는 양념 등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먹는 재미가 쓸쓸하였다



중장기 콘텐츠 : 자전거를 타자(2)

오 종 원
문화예술인력 /
피그헤드랩 운영

※ 지난 2회차에 걸쳐 작성한 데로, 본 시리즈는 누군가에게 자전거를 추천하기 위한 글이다. 막상 무엇인가 권장하는 목적의 글을 쓰려다 보니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 고민이 여전히 많다. 근래 피그헤드랩에 여행기를 기고한 김유주 필진의 글을 보고, 에세이의 형식을 취해보고자 한다.

제주도 종주 (1)

제주 종주를 소개 하려니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석양이 지는 함덕 해수욕장의 풍경이다. 우리는 이틀에 걸쳐 제주 한바퀴를 거진 다 돌았는데, 사실 골인 지점이 조금 남기는 하였지만 일부로 공식적인 종주의 마지막을 함덕에서 마무리하고 싶었다. 오는 내내 삼다 중 하나인 바람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지만, 함덕 해수욕장에 도착하고 나니 놓게 물들어가는 저녁해와 주홍빛 해변, 그 풍경에 내 자전거가 같이 어울리며 무언가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자전거용 클릿슈즈를 신으면 잘 걷지 않으려는 편이지만, 숙소에 가는 길까지 모래사장을 걸어 보기도 하였다. 원래 예쁘기로 유명한 곳이지만 지친 여정의 종착지라 생각하니 또 그리 아름다울 수 없다. 이제야 제주에 온 맛이 난다고 감탄사가 터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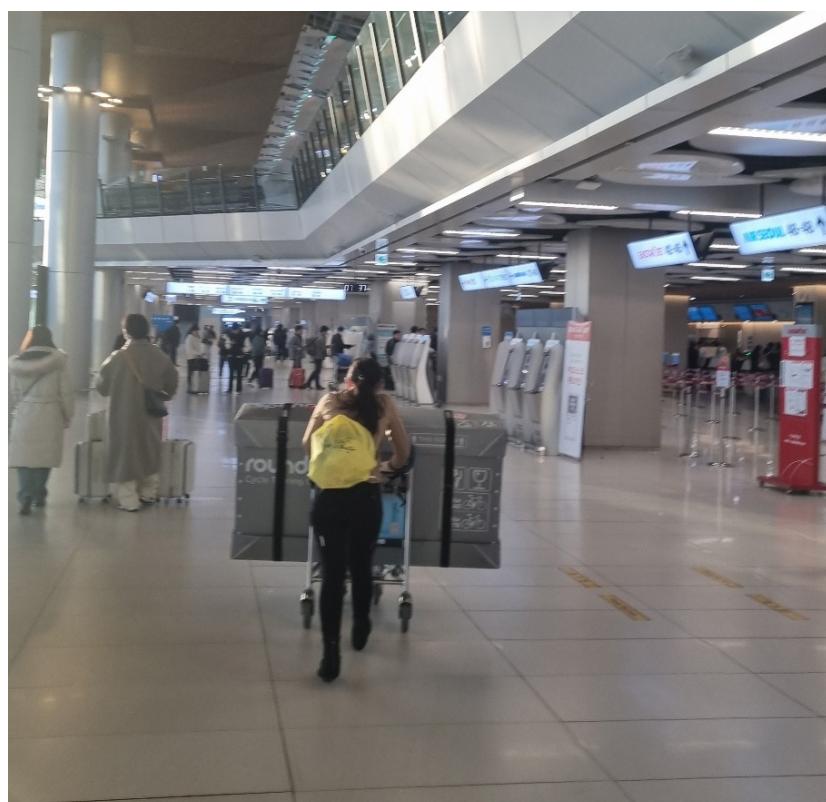
제주 종주길은 우리나라 공식 국토종주 자전거길 중 하나이다. 그랜드슬램을 달성 하려면 반드시 한바퀴를 돌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내가 제주 종주를 마음먹은 것은, 우연히 유튜브에서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였다. KBS 다큐 3일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제주 종주에 도전하는 이들을 소개하였다. 그 중에 한 그룹은 나이가 환갑이 넘으신 여성 라이더들로 이루어 졌었는데, 이중에 리더 격인 분이 아흔이 넘은 분이다. 제주야,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이들이라면 도전해본다고는 하지만 무려 아흔이 넘은 할머니라니! 물론 젊은 시절부터 자전거를 타서 베테랑이라고 한다. 다소 힘들어 하여도 끝까지 달성해내는 것을 보고 나니 나도 무엇인가 끓어올랐다. 제주를 가자. 다짜고짜 3박 4일 일정으로 항공편을 끊었다.

제주를 가는 것은 비행기 아니면 배편이다. 현재 제주를 가는 배편이 몇 있는데, 장점은 자전거의 거치가 편하다는 것(주차장 한 쪽에 묶어두는 방식)이 있지만 제주까지 시간을 꽤 잡는 편이다. 인천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아예 하룻밤을 꼬박 이동해야 한다. 여유가 있으면 배편도 낭만이겠지만,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비행기를 이용할 것이다. 배편과 반대로, 비행기는 시간은 짧지만 자전거를 어느정도 분해해서 화물로 실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참고로 김포공항역까지 지하철이 있지만, 현재 기준 공항철도는 사이클(로드 자전거)을 실을 수가 없고 지하철 5호선은 공휴일에만 가능하다.(미니벨로를 접어서 승차하는 것은 괜찮다.) 지하철 외에 방법은 ① 공항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던가 ② 벤(택시)을 부르던가 ③ 자차를 이용하는 수 밖에 없다. 우리의 경우에는 차편을 이용하기로 하였고 공항 근처 민영주차장에서 나흘을 예약하였다. 공항에다 바로 대는 방법도 있으니 편한 데로 선택해도 좋다.

비행기에 자전거를 실을 때 분해한다는 게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바퀴 두 개와 싯포스트를 분해한다 정도이고 사실 자전거를 탈 줄 알면 이건 아무 일도 아니다. 그러나 부담스러울 수 있는 초보자를 위해, 요즘엔 공항에서 자전거를 포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항공사에서 해당 사항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라운델’이라는 민간 업체에서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진 담당직원이 바쁘지 않으면 어느정도 도와주거나 알려준다고 한다. 금액도 왕복 48,000원으로 나쁘지 않다.

자전거를 상자에 넣고 화물 수속을 받으러 가는 모습. 근래 카본재질 로드 자전거의 경우 7~8kg내외임을 감안하면 상자까지 했을 때 10kg정도 생각할 수 있다.



아무튼 다소 피곤한 시작을 마치고 나면 이제 제주를 즐길 일만 남았다. 제주에 도착해서 자전거를 재조립하고, 공항 밖으로 나가려는 데 무엇인가 마음이 뛴다. 두근두근. 1층에 도착하여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야자수와 함께 파란 하늘이 보인다. 아주 잠깐, 새로운 세계에 대한 막막함 같은 것이 느껴 지기도 하였다.

아직 시간이 정오는 안되었지만 아침 겸 점심을 해결하기로 하였다. 제주시 안으로 들어가 올레국수를 먹기로 하였다. 고기국수는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메뉴이다. 공항에서 제주시의 구도심까지 직선 도로로 쭉 이어져 있지만 살짝 오르막길이다. 저 멀리 있을 한라산을 마주하는 기분으로 올라가본다. 제주 공항 근처에서 맛집을 찾다 보면 많은 이들이 추천하는 식당이 몇 개 있다. 그 중에 우진해장국과 올레국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참 연휴 중 방문했기 때문에 웬지 우진 해장국은 대기가 길 것 같은 느낌이었다. 혹시나 하고 간 올레국수의 대기열은 생각보다 짧았고, 우리는 든든하게 고깃 국물로 배를 채우고 여정을 시작하였다.

자전거 종주를 계획하다 보면 살짝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까짓 거 여유롭게 잡으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날이 어두워지면 달리기가 걱정스럽다. 우리가 방문한 시기인 3월 첫 주는 오후 6시경이 되면 해가 지기 시작하니, 첫날에 달릴 수 있는 시간은 5~6시간이 채 안되었는데 이날 서귀포에 도착하는 것이 원계획이다. 그러다 보니 식사를 빨리 해결하고 바로 종주길에 나서기로 하였다. 저녁은 서귀포에서 맛있게 먹자고 약속하면서.

제주 올레국수의 고기국수. 반찬이 조금 아쉬울 수 있으나 한 그릇이면 꽤 든든하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 세운 계획 상, 종주의 시작지점인 제주공항 왼편으로 이동하였다. 제주도는 보통 반 시계방향으로 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도로 구조 상 반 시계방향으로 돌 때 해안선 옆으로 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동해안 종주길도 마찬가지라서, 상행방향으로 올라갈 때 해안선 바로 옆에서 달릴 수 있다. 이왕 바닷가에 온 거 바다를 끼고 달리고자, 제주는 시계 반대방향이 정석이기는 하다. 그래서 보통 공항 왼편에서 시작해서 오른편으로 도착하게 된다.

살짝 길을 헤매다 보니 공항의 바로 옆길에 들어섰는데 바로 머리위로 비행기가 날아간다. 비행기가 신기할 나이는 아니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막상 머리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니 우와 소리가 나온다. 조금 서두르자고 얘기한 게 방금 전인데, 바로 포즈 잡아보라는 얘기가 나온다. 아무리 바빠도 여행과 라이딩의 묘미는 사진이기 때문이다. 괜찮은 위치를 잡고 비행기가 이륙하는 때에 맞춰 촬영 버튼을 누른다. 한번으로는 부족해서, 다음 비행기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저렇게도 찍어본다. 이건 반드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써야겠어.

제주 공항 왼편으로 몇 키로 떨어져 있는 이호테우 해변까지 차량이 꽤나 많은 편이었다. 목마 모양의 등대로도 유명한 곳이다 보니, 이 근방까지는 차량이 무척 많았다. 요즘이야 차량 운전자들이 자전거 라이더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 배려를 해주는 편이긴 하지만, 제주는 관광객들이 렌터카를 이용하는 쪽이다 보니 살짝 불친절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다. 재빠르게 목마 등대만 사진으로 남기고 첫번째 인증센터까지 달려나갔다.

첫 인증센터인 다락쉼터의 경우 다락재라는 곳의 꼭대기에 있는데, 이 재자가 들어가면 적당한 언덕이라는 뜻이다.(나중에 후술하겠지만 국내는 재, 령, 산 등의 순서로 높은 언덕의 이름이 지어져 있다.) 나름은 자전거 구력이 있다고 어렵지 않게 올라갔는데, 어느덧 땀이 찬 느낌이 났다. 제주의 3월은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워낙 오락가락이라 들었고, 심지어 우리 여행 일정에도 비 예보가 있어 외투를 제법 두툼하게 입고 왔었다. 그러나 마치 종주의 시작을 축하하는 듯, 제주의 날씨는 그렇게 좋을 수 없었다. 다락 쉼터에 도착하자마자 왜 이리 덥냐며 재킷을 벗는다. 기분은 좋았다.

다음 인증센터인 해거름 마을공원 인증센터까지는 바다를 보며 쭉쭉 달려나갔다. 다락쉼터부터 해거름 마을공원까지는 오른편으로 파란 바다가 쭉 뻗어 있었는데, 바다라는 게 뻔히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막상 그 옆에서 달리다 보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다. 다만 도로의 상태가 좋지 않아 종종 공도를 타며 달리게 되었다. 종주를 시작하다 보면 자전거 도로 노면의 상태를 보면서, ‘아 이 지역은 자전거 길을 이렇게 관리하는구나. 그렇다면 이번 종주는 대체로 쉽겠다 혹은 어렵겠다’라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제주는 분명 자전거 길이 준비되어있지만, 친절하다고 하기는 어려웠다. 해수욕장이나 바람에 실려온 모래들이 쌓인 경우도 많았고 또 일부 공사하거나 유실된 구간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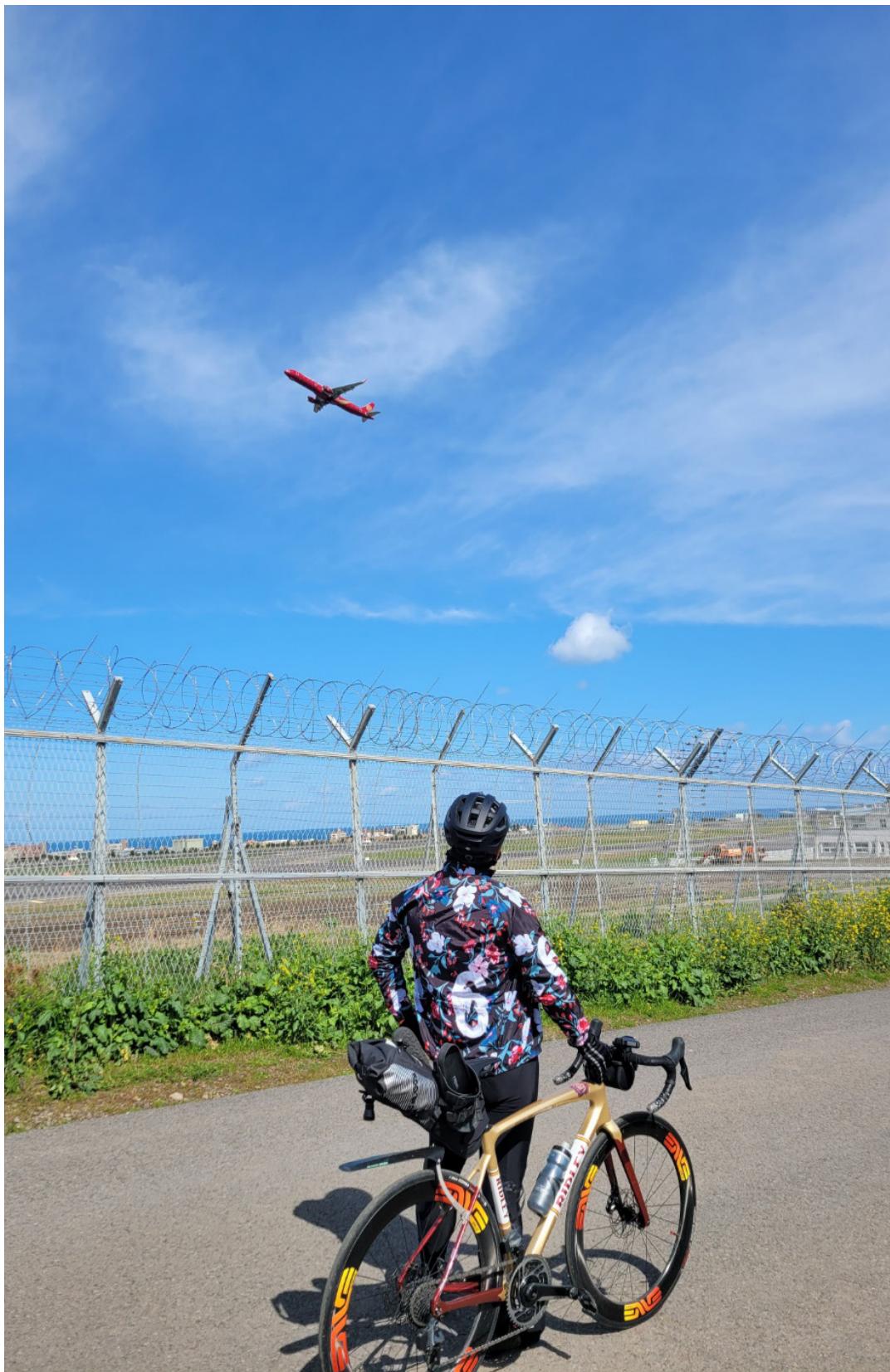
참고로 자전거 도로는 경험상 각 지자체가 관리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을이나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으면 그래도 꽤 관리가 되는 편이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에 는 어디까지나 제주 외곽 도로를 따라 구성되어 있고 민가에 인접한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렌터카로 관광을 다녀봤다면 알겠지만, 주요 관광지가 아니라면 제주 외곽은 마치 고속도로처럼 인적이 없는 경우도 많다. 도로의 상태가 좋지 못한 구간 들도 은근히 있었다.

날씨가 점점 더 더워져 갔다. 살짝 수분이 섞인 달콤한 것이 땄기는데 도로 양 옆 으로 무밭이 많이 보였다. 적당히 도톰한 무들이 잔뜩 자라 무밭을 한가득 덮고 있 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확하고 남은 것인지 길가 바로 옆에 나뒹구는 것들도 있 었다. 라이딩을 하다 보면 에너지를 소비하다 보니 생각지도 않게 무엇인가 땅길 때가 있는데, 김치도 무김치는 그리 좋아하지 않는 내가 왜 이리 무가 땄기던지. 저 나뒹구는 무 하나 들어서 쑥쑥 대충 닦고 한입 베어 물었으면 좋겠단 생각이 꽤 났다. 해풍을 맞고 겨울을 버틴 무일 테니 웬지 달콤한 맛이 날 것 같았는데, 나중 에 찾아보니 제주 월동무라고 꽤나 유명한 것이었다. 어쩐지 엄청 맛있어 보이더 라. 그렇게 무 하나 집어먹을까 고민하다 보니 송악산 인증센터 였다. 🐷



지금 이시각 2024. 4





점선에 갇힌 (2)

김희진
노동자

A

얼굴의 구성요소는 몸에서 가장 흔한 표면적 의미를 갖고, 역사를 형성한다. 동시적인 피드백을 부르는 직관의 선취이다.

D

표정 근육의 작은 요동은 공간을 휘게 하고, 구체적인 사건을 만든다. 그럼 이제 나는 어떤 인상의 대상이 될까.

A

두려움일까.

B

동정일까.

A

이미지는 내면에 존재하지만, 그 감상은 여기에 실재한다.

B

그 판독이 남겨진 과제이며, 얼굴이 찢어진 이상 어떤 선입견을 부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C

대응의 편향성을 가질 것이다. 며칠 간은 알지 못할 압력에 땅을 디디어 버티기 힘든 날이 반복했다.

D

주변에서 나는 인간의 얼굴, 그 중에서도 가장 일그러진 것에 주목했다. 얼굴은 인간의 주된 표면이며 이를 갖지 않은 인간은 이미 없거나 없어진 것이다.

A

반대로 나는 ‘표면 없이 인격만을 상정한 인간은 상상할 수 없을까’ 하고 묻는다. 내 상황을 타개하려는 몸부림이다.

B

서있는 거울들은 부서져 있거나 부서지는 종이거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워져 있다.

D

그러니까 나는 자기를 잃고, 모두를 염탐한다. 가면에 뚫린 구멍 사이로 무대의 정

정치를 관찰하고 자위한다.

A

머리의 생각을 무대에 올리고, 조금 멀리서 그를 관찰한다. 이제 거울은 껍질을 잃은 표면이다. 보고 있는 것이 부끄러워 가슴을 두들긴다.

C

온갖 것의 탓을 하여도 총알은 내게 꽂힌다. 미련을 담는 것은 아니지만, 눈물이라도 한 움큼 쏟아내어 동정을 구하고 싶다.

D

역사는 쉽게 조작되지만, 현상은 그렇지 않다. 상처는 지금 여기 고스란히 남아있고, 고통은 휘발되었다. 감투를 쓴 사람은 그 무게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B

극장에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는 구멍이 생겼다. 주변 물성도 저릿저릿한 것이 저너머에는 다른 세상이 있을 것 같다.

D

하루는 권태로운 마음에 그 컴컴한 우주를 좀 들여다보다가 명청한 지루함이 들어 벽을 가볍게 쳤다.

A

갑자기 이름 없는 구멍이 경련했다. 조그마한 구멍에게 이름이 어디 있겠나 싶다가도 그렇다면 그것대로 애처로운 마음이 들었다.

D

머리가 없는 조개는 수면 밖을 바라보다 마른 바람에 흔들리는 나를 찾고 울었다.

A

그대로 흐르는 벽에 취한 듯이 입맞춤했다. 그는 잠깐 파르르 떨다가 이내 똑같은 모양으로 혀를 내밀어 나를 쓸었다.

C

단단했던 내가 네게 흐느낀 때를 생각한다. 침대에 누워 그 심정을 하나하나 깨물다 보면 가끔 그 강도를 믿을 수 없을 것처럼 깨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때는 그것을 입에 물고 잠에 드는데 그 끈적임이 나를 스칠 때에도, 너를 스칠 때에도 두렵 기만 했다.

B

이제 무대의 무력감에도 익숙해졌다. 가면을 쓴 나는 관객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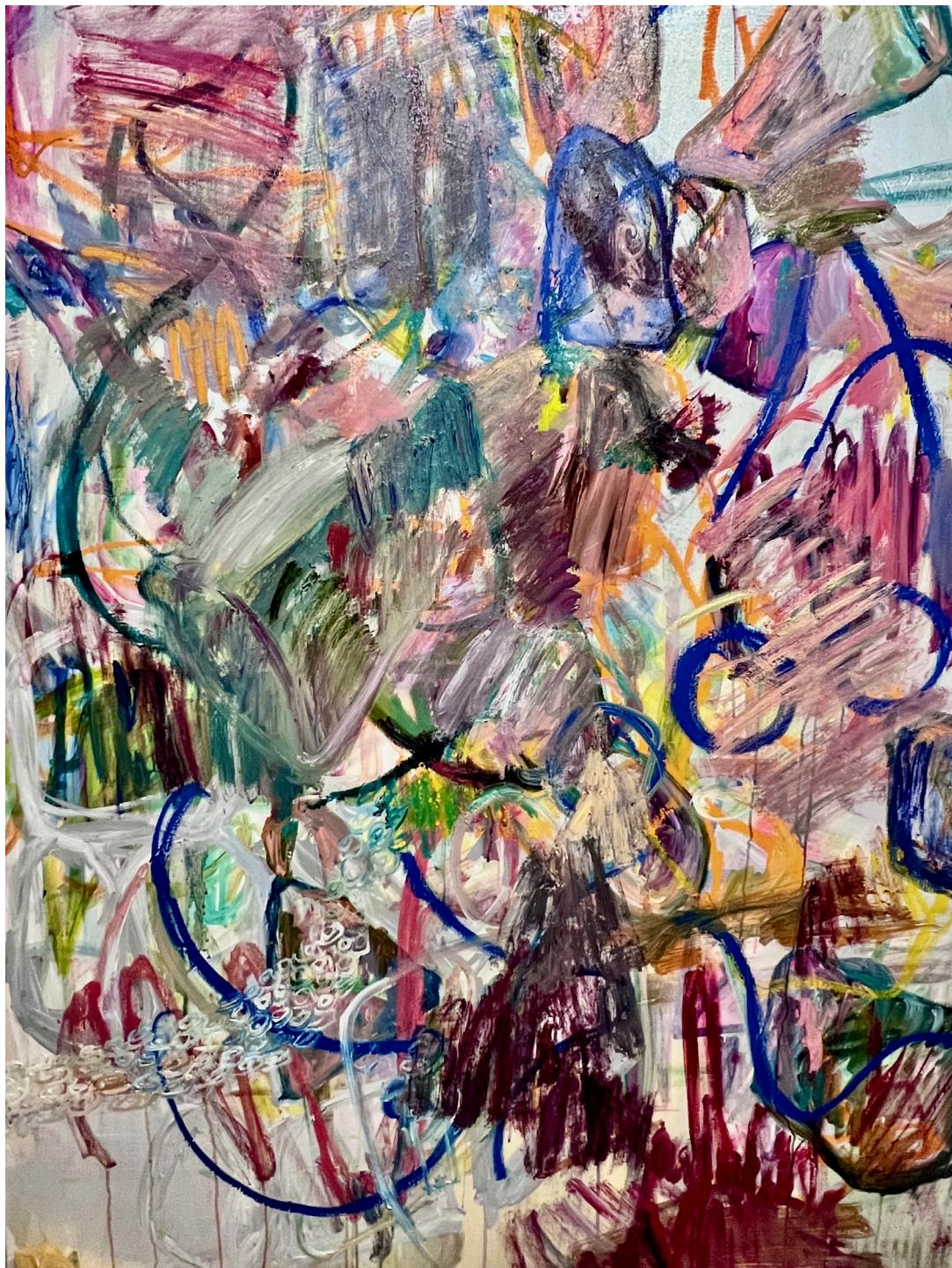
내 의지가 그렇지 않더라도 그래야만 하는 때가 있는 것이다. 극장은 스스로 지워지고, 빛을 박탈당한다.

A

일상이, 심지어 걷는 것이나 세수하는 것도 버거워지는 느낌이 들어 모든 것을 놓고 포기하는 시기에 있다.

B

이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줄곧 내 등에 붙어있었는지도 모른다. 요 며칠은 정말로 모든 것을 어디에든 반납하고 제자리에 드러누웠는데, 그에 또 알지 못할 죄책감이 생겨 그리 편치만은 않더라.



C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전에 내 생활에 이 지독한 벌레가 드리웠는가. 이에 적확한 이유가 보였대도 해결할 수 있었을까 싶다만,

D

나로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다. 선생이 약을 좀 권하여 눈깔만한 것을 목에 쑤셔 넣고 스무 번째 꿈을 꾼다. 역겨움에 질려 잠도 포기한다. 뭘 좀 먹어볼까 해도 나를 괴는 마음이 없으니 결과도 없다.

A

차라리 뚜렷한 결손이 있으면 여기나 저기에 동정이라도 구할 텐데, 재미없고 속상할 뿐이다.

C

괜히 배경을 그리고, 손을 뻗어 체조한다. 🐱







4.16 참사 추모

이 채연

창작가 /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주부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전 - 기억의 파도에 작품 2점을 기증했다.

이 그림을 그릴 당시, 어떻게 든 추모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정성을 다해 열심히 그렸다. 그게 내 추모의 방식이라 생각했다. 간결한 터치로는 내 마음을 표현할 아이디어나 재주가 없었기도 했었고. 올해 4.16 기억전시관에 좋은기회로 기증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이 제자리를 찾아가서 다행이다. 마음을 표현했고, 기다린 보람이 있다.

감모여재도-세월호 희생자에게, 2017, 한지에 분채와 금, 95x70cm

크나큰 재앙과 같은 슬픔 앞에서, 무명의 군중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무력해 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림으로나마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안도하게 된다.

감모여재도는 원래는 조상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당의 형태로 표현한 그림이나, <감모여재도-세월호 희생자에게>에서는 추모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병자호란때 의병이 전사 하였을때 가족들이 슬퍼하는 동안 노랑나비가 나타나 슬픔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같이 매장하였다는 고사가 있으며, 지금도 황해도 신천군에 노랑나비 무덤이 있다고 한다. 이 이야기에서처럼 그림의 노랑나비는 같이 슬픔을 나누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너에게, 2023, 한지에 분채 35x2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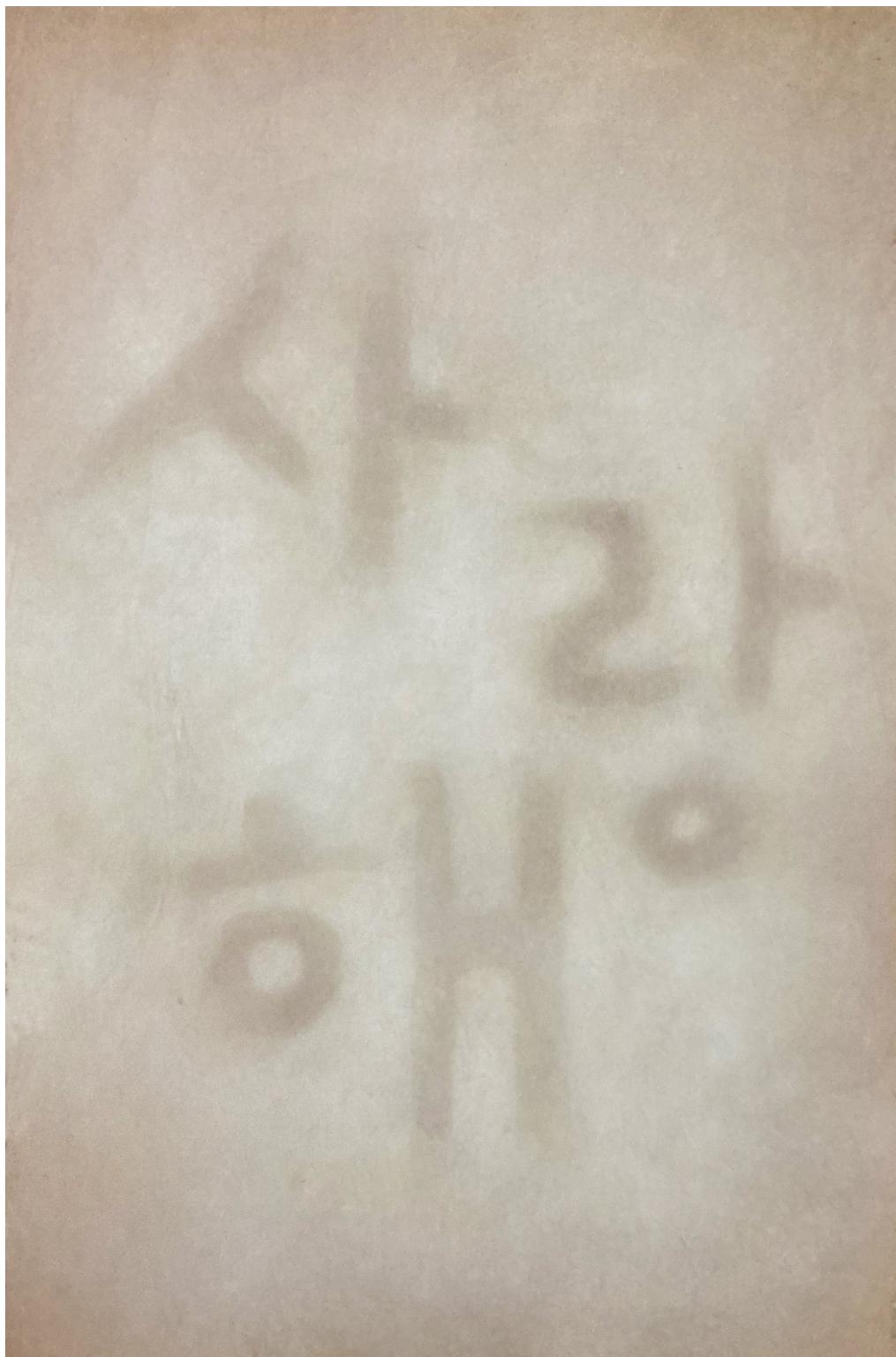
마지막 순간 보내는 메세지는 대부분 ‘사랑해’였다.

사랑하고 사랑받은 사람들 잘 잠들기를

남은 사람들은 더 사랑하며 살기를



* 편집자 주 : 본래 작품 당 설명이 같이 있었으나, 작품 자체에 집중하였으면 하는 마음에 이미지를 뒷면에 별도로 실었습니다.



(위) 너에게, 2023, 한지에 분채, 35x23cm

(뒤) 감모여재도-세월호희생자에게, 2017, 한지에분채, 95x70cm





‘계란에 진심이다.’

줄 리
음식예술가

레스토랑 주방의 문턱을 10여년 만에 다시 들어섰다.

다시 들어선 레스토랑 주방은 기존의 나에게 친숙했던 한국 식재료와 주방 시스템과는 확연히 달랐다.

물론 세계 어디를 가던 모든 요리의 밑바탕은 비슷하거나 같겠지만, 내가 해왔던 방식과 그들의 방식은 차이가 있으니 아무리 작은 시골 레스토랑이라고 해도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었다.

한식보다는 재료 손질이나, 맛을 뽑아내는 과정이 복잡하지 않지만, 그들 나름대로 또 다른 섬세함과 복잡함이 있었다.

사실, 캐나다 중소 도시 외곽의 케주얼 한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다.

무엇보다도 김치, 불고기, 갈비등에 익숙한 내게 우선은 그들의 음식명부터가 생소했다.

비프리버, 헌터빌, 웨스턴 스크램블, 덴버샌드위치, 살리스버리 스테이크, 파머스 오믈렛, 트래디셔널 베네딕트, 터키디너, 클래식버거, 텐더링 버거, 등등
큰 카테고리는 6가지 메뉴정도로 분류 되지만, 그안에 세밀하게 따져 보니 100여 가지 메뉴를 가지고 있었다.

사실 여기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에게 친밀한 음식 재료명이지만 반평생을 한국에서 살아온 내게 이 또한 쉽지가 않았다.

레스토랑에 정식으로 출근 하기에 앞서 우선 메뉴판으로 메뉴 공부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 하는 것과 실제로 현장에서 투입되어서 음식을 만드는 과정은 확연히 달랐다.

손님이 원하는 음식을 정확하게 맛있게 요리해 내 놓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사이드 음식과의 온도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손님에게 주문이 들어왔을 때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으로 음식을 해 내는 순서도 중요하다.

메인 요리는 아직 준비 중인데, 사이드 음식부터 준비해 놓으면 그 동안 음식이 차가워져 손님 앞에 음식이 놓여 있을 때는 메인은 따뜻해도 사이드는 차가워 음식의 온도의 조율이 깨져 손님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다.

다른 메인 요리들도 서툴고 낯설어 허둥지둥 되지만 무엇보다도 세상 단순해 보이

보이고, 쉬워 보이는 계란 요리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서니사이드업, 오버이지, 오버미듐, 오버하드, 스팀드 소프트에그, 스팀드 미듐에그, 스팀드 하드에그, 포치드 소프트에그, 포치드미듐에그, 포치드에그 하드, 스크램블

간혹 어떤 손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신이 원하는 계란요리를 요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오버 미듐과 오버이지의 중간단계…

참으로 난해하다.

처음에는 내 촉감으로 오버이지, 오버미듐을 요리해 내 놓았는데, 간혹 클레임이 제기 되기도 한다.

맛을 내는 것도 아니고, 기술을 요하는 요리도 아닌 단순히 계란과 오일과 팬의 온도로 요리되어지는 계란 요리가 이렇게 까다롭고 힘들 줄은 꿈에도 몰랐다.

주방 시스템 상 시간과 온도를 레시피화 해서 계란 요리를 하기에는 불가능하다. 모든 게 나의 감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단순하면서도 복잡하다.

먼저 육안으로 노른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손 끝으로 살짝 눌러 보아 그 터치감으로 계란 요리의 완성도를 체크해야 한다.

간혹 내 감각으로 계란 요리를 내 놓아도 막상 손님이 원하는 계란요리가 아닐 때가 있다.

아마도 나에게 뜸이 덜 들은 밥을 주거나, 혹은 식은 밥을 주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니 그 다음부터는 계란 요리에 더 진심으로 다가서게 되었다.

계란 요리시에는 어떤 첨가물도 들어가지 않는다.

깨끗하게 닦여진 팬 위에 스프레이 오일 살짝 뿌린 후 싱싱한 계란 두알 톡 깨뜨려 올려둔다.

맑은 흰자가 서서히 하얗게 익어가고, 노른자의 노란색 더욱 탱글탱글 도드라진다.

노른자옆의 흰자가 다 익었을 때, 서니사이드가 되고, 이때 뒤집어 노른자의 겉만 살짝 익으면 오버 이지,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시간을 두어 노른자를 만졌을 때 약간 부드러움이 느껴지면 오버미듐, 그리고 마지막 노른자가 완벽하게 익으면 오버하드가 된다.

지금은 처음보다는 많이 능숙해 져서 곧잘 계란 요리를 해 내지만 종종 급한 마음에 서두르다가 노른자를 터트려 다시 요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지금까지 잘해내고 있는 내게 많은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아직은 서툰으로 가득한 내 요리에 맛있다고 칭찬해 주시는 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그들은 알까?

내가 항상 요리를 할때마다 그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 주고 있음을… 그리고 감사함을

내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요리해보자
잘해내고 있다. 파이팅 



2024 금의 성물 시리즈

박준식
화가

예전부터 장식물이나 공예작품들을 보며 단순히 시각적으로 유희를 만끽하는 것 이상으로 부적으로서 기능하는 모습들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런 지점에서 이번 작업도 이뤄졌고 어찌보면 무언가를 기원하기 위해 그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좀더 평면적이면서 명료한듯 추상적인 경향들 속에 자신을 맡겼고 그런 결과가 이번 작업이 아니었을까 싶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지금 이시각에와 함께 하며 몇점의 드로잉을 계속적으로 발표하고자 한다.

그것은 지금의 자신의 위치와 입장에서 적절한 루틴과 앞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아티스트의 길에 있어서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



2024 금의 영물 시리즈 -
말_2023_21.0 x 14.8cm_
mixed media on paper.



2024 금의 영물 시리즈 -
뱀_2023_21.0 x 14.8cm_
mixed media on paper.



2024 금의 영물 시리즈 -
소_2023_21.0 x 14.8cm_
mixed media on paper.

2024 금의 영물 시리즈 - 두꺼비_2023_21.0 x 14.8cm_mixed media on paper.



2024 금의 영물 시리즈 -
양_2023_21.0 x 14.8cm_
mixed media on paper.



2024 금의 영물 시리즈 - 코
끼리_2023_21.0 x 14.8cm_
mixed media on paper.



리얼 노마디스트

제이드
이루려는 자

부부 심리상담사가 오히려 되물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남편과의 의견충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찾아간 부부 심리 상담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나에게 되물었다.

그동안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고, 궁금해했다.

10년이 넘는 결혼생활 동안 생활비도, 적당한 양육비도 받지 않고도 남편과 큰 싸움 없이 살고있고, 그렇다고 남편이 아이들 양육을 도맡아 하는 것도 아니고, 집안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시댁 사람들과도 사이 나쁘지 않고, 남편과도 잘 지내는 게 말이 되냐고 나에게 되물었다.

부부 심리상담 사례 중에도 처음 본다 하였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도 내가 너무 이상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결혼생활을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결혼하고 10년이 훌쩍 넘어 두 아이까지 있는 가장으로서 생활비를 안 주는 남편이 답답했지만, 열심히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아이들을 키웠고, 열심히 직장 일을 했으며, 시간이 허락하는 한 당연히 남편을 챙겼다. 그게 여자로서 엄마로서 당연한 거로 생각했다. 무엇 하나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했었다. 나의 결혼생활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인지하지 못 했다. 그냥 어딘가 좀 답답 하지만, 내가 좀 더 열심히 엄마 노릇 하고, 아내 노릇 하고, 딸 노릇을 한다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나는 15년간 그렇게 살았다.

나는 엄마가 미워질 무렵 이것저것 심리학책을 읽어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책에서 마치 내 마음속을, 인생을 눈으로 보고 쓴 것 같은 책을 발견했다.

그 책에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딱 한 마디!

‘부모 복이 없으면 남편복은 당연히 없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소름 끼치게 정확하다.

그 원리는 간단하다.

엄마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나르시시스트이다. 자기애성 인격장애. 본인을 제외한 제삼자에게는 공감하지 않는다. 공감하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감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데다가 남을 질투하고 자기보다 잘난 상대는 깎아내려야만 한다. 그것이 본인의 자식이라도 말이다. 그런 엄마에게서 자란 나는 어릴 때부터 가족 안에서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생존을 위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기 때문에 나에게 집은 편안한 마음으로 부모님의 보호 아래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엄마는 집안의 첫 번째 딸로 태어난 나를 질투의 대상으로 인식했던 것 같다. 내가 태어나 가족의 관심과 사랑을 한몸에 받게 되자 엄마는 마치 아빠가 둘째 부인을 집에 데려왔을 때 느낄 수 있는 좌절과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매 순간 엄마에게서부터 별것 아닌 행동으로 지적받고, 비난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 지적과 비난을 받을 때마다 늘 스스로 못난 사람이라 인정하고, 비난하고 완벽한 모습을 갖춰야만 조금이라도 부모님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했다.

자연히 집보다는 오히려 친구들과 밖에서 신나게 노는 그 순간만이 나에게는 너무 행복했었다.

집으로 들어오면 늘 사랑을 갈구해야 했고, 항상 뭐든지 남보다 잘하는 딸이 되어야 했기에 매번 잘못했다. 더 잘하겠다고 말해야 했었다. 부모님에게 필요한 존재여야만 조금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다.

조금 더 커서는 조숙해야 했다. 내 기억의 나의 모습은 엄마의 보호자를 자처하고 엄마의 필요에 따라 움직였고, 나의 그것은 중요치 않았다. 스스로 나의 감정을 무시하고 엄마를 보호하고 돌볼수록 엄마에게 완전히 맞춰주면 언젠가는 나를 돌봐주고 사랑을 듬뿍 주실 거라 굳게 믿었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성향은 점점 발전되어 어른이 되어서는 정서적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측면까지 점점 내가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나도 모르게 책임지게 되었다. 그것은 흔히들 말하는 'K-장녀'의 기본이라지만, 자연히 나 자신은 점점 잊고 멀어지게 되었다. 가족들이 행복한 다음에서야 나를 돌아볼 수 있었는데, 내가 꿈꾸던 모든 가족이 행복한 순간은 오지 않았다. 매 순간 작고 큰 문제의 연속이었고, 엄마는 언제나 피해자였기에, 돌봄을 받는 것은 당연했다. 아빠는 사회에서는 항상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셨지만, 그 만큼 가정일 적에 소홀하셨고, 덕분에 나는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가며 엄마를 도맡아 돌봐야 했다. 엄마 기분이 상하지 않게, 몸이 아프지 않게, 필요한 물건이 없도록 매우 열심히 무조건 적으로 엄마를 돌보았던 것 같다. 덕분에 당시 나 자신의 감정은 어떠한지 생각해본 적이 없이 꽤 오랜 시간을 살아왔고, 나의 표현하고 느끼는 것 자체가 사치였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나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내기가 어렵다. 가장 가까운 내 두 아이와의 감정 교류조차도 너무 어렵다.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해야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지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다.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 시간은 지나고,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인지도 알지 못한 채 어른이 되었다. 그러다가 만난 남편은 그냥 서로 무언가 통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다른 사람을 살뜰하게 챙기는 남편은 참 착한 사람이라 생각했다. 나는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하고, 따뜻한 보살핌이 어떤 것인지조차 모르고 살아왔으니, 저렇게 살뜰하게 남을 챙기는 사람이라면 나 또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 같다.

하지만 정말 기대했던 세심한 챙김, 사랑은 그냥 남에게만 베푸는 온정 같은 것이었다. 가족이라는 영역 안에 들어간 나는 그냥 당연히 옆에서 그를 도의야 하고, 같이 다른 사람을 챙기는 그냥 또 하나의 인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냥 좀 나를 무시해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고, 정작 가족인 나와 아이들을 챙기지 않더라도 사실 나는 그것이 너무 익숙했고, 원래는 착한 사람이니 내가 조금만 더 챙겨주면 다 괜찮아질 것이라 여기고 그냥 참거나, 그런 남편을 비난하는 게 내가 해왔던 내 마음의 불편함을 없애는 방법 전부였다.

그렇다. 나는 엄마와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를 길러낸 엄마 밑에서 자란 남편을 만났고, 서로 묘하게 익숙했고, 또 무언가 불편했지만, 우리 둘은 서로 잘 통했다. 나는 엄마에게 했듯이 나의 감정은 배제 시킨 채 너무 습관처럼 물심양면 남편을 살뜰히 보살피고 돌보았다. 남편은 그의 습관처럼 상대의 감정을 느낄 필요도 없이 나를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여겼던 것 같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너무 잘 맞는 부부였다.

아이 둘을 낳고 기르면서 어렴풋이 느끼고, 공부하되 되면서 부모님과 거리를 두고자 마음을 먹고, '우리의 부모처럼 살지 말자' 부단히도 남편에게 지금 우리의 상황을 이해시키려 노력했지만, 소용없었다.

나도 명확하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무언가 답답하고 불편한 이 상황에 나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 것만 같았기에, 나와 비슷한 성장기를 가진 남편에게 함께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을 한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을 그만하자 제안했고, 그러려면 부모님들과의 적당한 거리가 필요했기에, 캐나다 이민을 제안했다. 처음에는 '캐나다'가 주는 이상적 느낌이 좋아서였는지 나의 의견에 동의했지만, 이민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조금씩 변해가면서 남편의 마음은 변해버렸다. 캐나다에 이민 가면 처음부터 다시 힘들게 외국 노동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크게 걱정 없이 부모의 그늘 그냥 살던 대로만 살면 힘들 것 같지 않다 느꼈는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민 가고 싶지 않아졌다고, 자기 한국에 있기로 마음을 바꾸었으니 나한테도 아이들도 이민가지 말고 다 같이 한국에서 살자고 하였다.

끝까지 남편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었다. 다자란 우리는 그렇다 치고 이제 막 삶을 시작하는 두 아이에게 기회를 주자고, 같이 노력하면 어렵지 않을것이라고 금방 자리잡을 수 있을것이라고 용기를 내어 보자고 했다.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다.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잘 살아왔고, 현재 너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부모가 이상하다는 둥 벗어나야 잘 살 수있다는등 이상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변한 내가 이상하다고, 정신 차리라고 말했다. 부모와 거리를 두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짓이라 말하며 나를 비난했다.

그래도 정말 끝까지 남편이 마음을 바꾸어주기를 바랐다. 어쩌면 혼자가 될 내가 너무 두려워서 놓지 못했던 것 같다. 하지만 너무나 당연히 남편은 내가 너무 예민해서 현실과는 달리 제멋대로 상상을 한다고 말했다. 제일 가까운 부인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남편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의견이 맞지 않는 남편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견을 좁히기 위해 부부 심리상담소도 가보고, 화내기도 해보고 싸우기도 했지만, 결국, 혼자서 두 아이와 함께 캐나다로 왔다. 여전히 두 아이 만큼은 본인의 감정에 충실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며,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명확히 판단하고 살아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이미 혼자인 캐나다에서 지금도 나는 혼자가 되는 것이 매일 너무 두렵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지 머릿속으로 매번 생각해 본다. 앞으로는 새로운 이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하루하루가 어렵지만, 엄마니까 이루어내기 보기로 매일 다짐한다. 아자아자! 화이팅!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독자 의견을 듣습니다
문화예술인, 자신만의 세계를 소개하고 싶은 누구나 환영
합니다.

알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말, 자신의 작업물, 소개하고 싶은 것들. 편하게 남겨주시면 아카이브 하도록하겠습니다.
pigheadlab@gmail.com / 프로필 이미지, 필명, 자기소개

<지금 이시각> 및 관련한 모든 콘텐츠 저작권은 피그헤드랩(pigheadlab)과 편집자, 개별 콘텐츠 당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시각>내 콘텐츠 사용, 문의 등은 우선하여 피그헤드랩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시각 TIME NOW_2024. 4, 스물두번째

발행 / 편집 : 오종원

발행처 : 피그헤드랩 pigheadlab

www.pighaedlab.com

웹사이트 내 PDF로 관람 가능

문의 : pigheadlab@gmail.com / 01082339033

참여 필진 :

김희진, 박준식, 오종원, 이채연, 제이드, 줄리